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④ 6월 모의평가 활용법

## 중·하위권, 실제 수능 유형 결정 '잣대' 언어·외국어 상하 점수 역전 폭 체크를

### A·B형 난이도·EBS 연계율 등 점검 기회 삼아야

5일 시행하는 6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것으로,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처음으로 도입된 선택형 수능에서 A형과 B형의 공통문항 개수 및 난이도 차이, EBS 연계율, 지원 대학의 수시 수능 최저등급 통과 가능성,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등 실제 수능과 대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쉬운 A형-어려운 B형 결정 기준=과목별 1~3등급인 상위권 학생들은 응시 유형이 어려운 B형 중심으로 사실상 정해졌으나, 중·하위권과 교육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본 뒤 A형 또는 B형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인문계 수험생들은 국어B+수학A+영어B형을, 자연계 수험생들은 국어A+수학B+B+영어B형을 일단 응시해 자신의 수준을 점검한다. 그럼에도 유형을 결정하지 못한 과목은 반드시 A형 시험지를 구매 다시 봄아 한다.

A형과 B형의 공통문항 개수, 본인이 느끼는 난이도 차이, 원점수 차이 등 A형과 B형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축적한 뒤 점수가 나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결정한다.

4~6등급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지원 대학의 최저등급과 정시의 B형 가산점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가산점이 높지 않으므로 교내만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어영역은 응시 인원의 비율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 구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오답문항 철자 분석률=6월 모의평가 결과와 실제 수능의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표1)

그러므로 점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각 영역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원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과의 관계 =6월 모의평가에서 언어 1등급 학생은 5.5%이고, 그 중 수능에서도 1등급 학생은 1.1%이다.

다시 말해,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 1등급 학생 중 수능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학생은 20%뿐인 정도로 언어영역은 상하 점수 역전의 폭이 넓다. 언어영역에서 모의평가 1등급 학생은 수능에서 1~3등급 사이를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수학은 완전히 다르다. 모의평가에서 수리가 1등급 학생은 6%이고 그 중 수능에서도 1등급 학생은 3.4%이다. 모의평가 수리가 영역 1등급 학생 중 수능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학생은 57%일 정도로 수리영역은 상하 역전의 폭이 좁다.

올해 입시의 중심인 외국어 영역은 난이도에 따라 상하 역전의 폭이 매우 불규칙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6월 모의고사를 대학입시에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평가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자

기여하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계 교재와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준비에 추가되는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등급 판단 자료=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월 학력평가로부터 점수가 항상 평균 이상기록을 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에서는 등등자를 많아 실제 보다 등급성이 많이 나오므로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자

기여하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고사 1등급 수준으로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계 교재와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준비에 추가되는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등급 판단 자료=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월 학력평가로부터 점수가 항상 평균 이상기록을 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에서는 등등자를 많아 실제 보다 등급성이 많이 나오므로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계 교재와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준비에 추가되는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등급 판단 자료=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월 학력평가로부터 점수가 항상 평균 이상기록을 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에서는 등등자를 많아 실제 보다 등급성이 많이 나오므로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계 교재와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준비에 추가되는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등급 판단 자료=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월 학력평가로부터 점수가 항상 평균 이상기록을 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에서는 등등자를 많아 실제 보다 등급성이 많이 나오므로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계 교재와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준비에 추가되는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등급 판단 자료=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월 학력평가로부터 점수가 항상 평균 이상기록을 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실제 수능의 예상 등급을 6월 모의평가 실제점 결과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험생에서는 등등자를 많아 실제 보다 등급성이 많이 나오므로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94%로 1등급이 나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판단하고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학습 상황을 재점검해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영역의 오답문항을 중심으로 틀린 이유 분석,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유사문제 정리까지 하루에 30분 정도씩 매일 심도있게 학습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영역별 오답 문항들을 EBS 연



### 과학 창의력 쑥~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이정선) 영재교육원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삼성 꿈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창의과학교실은 초등학교 6학년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92시간동안 매주 토요일 실시된다.

### 캠퍼스 소식

####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학과장 김지연) 제32회 졸업작품 패션쇼가 오는 5일 오후 7시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Time on the Runwa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패션쇼에서는 51명의 예비 디자이너들이 현재 진행형인 시간의 흐름을 130여벌의 의상을 통해 클래식-모던-펑크-모던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패션쇼를 위해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예비 디자이너들은 2013년 S/S 와 F/W 패션 트렌드 소재와 색상을 반영해 작품을 구성했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체의 자문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보다 실무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과정을 통해 기업의 실무능력을 접하는 등 취업능력 개발 기회를 가졌으며 비닐을 통한 아트웨어, 인조가죽 등을 활용한 모던 쉬크룩, 카모플라쥬 프린트를 DTP해 만든 네오 밀리터리 룩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는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 32회에 걸친 의상발표회를 개최해 호남지역은 물론 한국의 패션문화 전립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캐주얼브랜드인 POLHAM을 전개하는 (주)에이션 패션 박재홍 대표이사 등 결출한 패션 동문들 많이 배출했고, 올해부터는 (주)현영상사에서 매년 1200만원의 기업인재 장학금을 수탁받는 등 호남권 최고의 명문 패션디자인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전국 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최

광주대학교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교내 호심관 소강당에서 제17회 전국 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피아노, 성악, 실용음악보컬, 현악, 악기 등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참가자 개인에 대한 심사와 함께 평가 및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참가자가 경연 곡을 연주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내는 것과 동시에 조그만 메모지에 장점, 고쳐야 할 점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모든 참가자는 경연 후 각 심사 위원(최대 5인)의 평가표를 받아 볼 수 있어, 자신의 음악공부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문 1등과 2등 입상자가 광주대에 진학하면 등록금 면제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여대 봉사단, 용진 육아원서 사랑 실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주자문) 사회봉사단은 최근 품격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인 봉사덕목 시행과 지역사회 연계한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광산구 임곡동의 용진 육아원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여대 학생 자원봉사자와 교직원 등 약 30여명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전기시설 점검과 여름철 해충의 피해를 막아 주는 방충망 수리 및 교체 작업, 용진육아원 내 청소 및 정리 정돈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상담심리학과 노은지(3년) 학생은 "함께 지원한 동료 학생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다함께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느꼈고, 형식적 봉사가 아니라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방

충망 수리하는 등 육아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봉사여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고교생에 입학사정관제 체험 제공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고등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전형 제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GTS 선발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생에게 2014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정보

를 제공하고 입학사정관전형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모의면접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직접 조선대를 방문해 하여 입학사정관전형 및 캠퍼스를 체험하는 On-Campus 프로그램 ▲조선대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고교현장을 방문하는 Off-Campus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의는 062-230-6684.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